東大新聞

發行人 徐敬珏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編輯部長 尹太京

發行所
우편번호 199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8131~9
本社直通 ㉓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自己心爲師,
不隱他爲師,
自己爲師者,
獲眞智人法.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남을 따라서 스승으로 하지마라. 자기를 잡 닦아 스승으로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나니.

<法句經>

後期卒業式, 28日盛了

博士7, 碩士7, 學士89名배출

"主體的自覺으로 社會에" 停年退職 두 敎授에 感謝牌

◇ 72학년도 후기졸업식이 지난달 28日오전 10時 中礎堂에서 朴愛眼理事長, 徐敬珏총장 및 ◇法眼副總長및 내외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영예의 ◇ 서는 金起東교수에 文學博士학위, 金鍾遠교수에 경제학박사학위, 金炳照교수에 이학사학위 ◇ 위, 黃石淵교수에 法學博士學位, 金昌浩교수와 金浮約, 元鎭樂氏에게 名譽 농학박사학위를 ◇ 수여했고 碩士7명, 대학원연구과정수료생19명, 學士89명이 배출 되었다.

이 자리에서 徐총장은 식사를 통해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고 사회의 일꾼이 되길바란다」고 말했으며 朴理事長은 告辭를 통해 「本校의 전학이념인 불교정신으로 사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돼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崔城九동창회장의 祝辭가 있었다.

한편 이날 식전에서 지난 8月31日자로 정년퇴직한 양주동박사와 어승우박사에게 각각 감사장을 수여했다.

◇金晄熙理學博士=「이공학적견지에서 본 한글기계 과학어」

◇金炳照理學博士=「이공학적견지에서 본 한글기계 과학어」

◇ 다음은 박사학위 수여자 및 학위 논문 제목이다.

◇金起東文學博士=「國文學上의 佛敎思想硏究」

◇金昌浩理學博士=「國際訴訟法 判例의 硏究」

◇元鎭樂農學博士=「農業經營學上의 硏究」

◇黃石淵法學博士=「民事訴訟法 判例의 硏究」

▲27年 慶北상주出生 ▲33년 서울出生 ▲서울大法大졸업, 東大學院卒業 ▲34년 서울출생 ▲본교일반과 및 同大學院졸업 ▲69년 본교교수 ▲71년 부교수 한국조경학회이사 ▲저서및 논문=「영남·호남 최박입지 적지적수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지리산 자원에 관한 연구」 ◇黃石淵法學博士=「民事訴訟法 判例의 硏究」 ▲서울大法大졸업, 東大學院卒業 ▲53년 전남대文理大조교수 ▲61년본교 조수 ▲71년 교양학부장 ▲주요저서=「國文學概論(56)」「古代小說概論(57)」이조시대소설론(60)」등 多數 ◇金炳照理學博士=「이공학적견지에서 본 한글기계 과학어」 ▲日本九州帝大졸업 ▲46년 서울出生 ▲49년 동아대교수 ▲59년 한국대교수 ▲56년 중대교수 ▲59년 교수 ▲63년 교수 ▲63년 영남대학장 ▲73년 石公總務이사 ▲저서=「화폐론」「화폐금융론」「캐인즈일반이론입문」「경제원론」「경제사사전」「경제대의」 ◇金昌浩理學博士=「國有林 運營및 樹種更新과 接大造林에 關한 硏究」 ▲고대대학원경제과졸업 ▲55년 전임강사 ▲56년 조교수 ▲63년 부교수 ▲63년 교수 ▲59년 교육과 및 同大學院졸업 ▲54년 서울출생 ▲본교일반과 및 同大學院졸업 ▲69년 본교교수 ▲71년 한국조경학회이사 ▲저서및 논문=「영남·호남 최박입지 적지적수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지리산 자원에 관한 연구」 ◇黃石淵法學博士=「民事訴訟法 判例의 硏究」 ▲서울大法大졸업, 東大學院卒業 ▲72년 본교법과 및 同大學院졸업 ▲72년 본교강사 ▲저서및 논문=「원자력의 농업에의 연구」「원자력의 식생에 관한연구」「PCP및Prometheyne의 살균특성과 수도에끼치는 약해에관한연구」 ◇元鎭樂農學博士=「방사선에 의한 수도단백질육성」 ▲43년 경남출생 ▲69년 농학과졸업 ▲69년한국원자력학회회원 ▲" 한국육종학회원 ▲72년 본교개량연구」「도마도의 돌연변이 육종에 관한 연구」 ▲34년 서울출생 ▲본교일반과 및 同大學院졸업 ▲69년 본교교수 ▲71년 한국조경학회이사 ▲저서및 논문=「영남·호남 최박입지 적지적수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지리산 자원에 관한 연구」 ◇黃石淵法學博士=「民事訴訟法 判例의 硏究」 ▲서울大法大졸업, 東大學院卒業 ▲61년 전남대文理大조교수 ▲73년 교양학부장 ▲주요저서=「國文學概論(56)」「古代小說概論(57)」이조시대소설론(60)」등 多數 ◇金炳照理學博士=「이공학적견지에서 본 한글기계 과학어」 ▲日本九州帝大졸업 ▲46년 서울出生 ▲49년 동아대교수 ▲59년 한국대교수 ▲56년 중대교수 ▲59년 교수 ▲63년 교수 ▲63년 영남대학장 ▲73년 石公總務이사 ▲저서=「화폐론」「화폐금융론」「캐인즈일반이론입문」「경제원론」「경제사사전」「경제대의」 ◇金昌浩理學博士=「國有林 運營및 樹種更新과 接大造林에 關한 硏究」 ▲고대대학원경제과졸업 ▲55년 전임강사 ▲56년 조교수 ▲63년 부교수 ▲63년 교수 ▲59년 교육과 및 同大學院졸업 ▲54년 서울출생 ▲본교일반과 및 同大學院졸업 ▲69년 본교교수 ▲71년 한국조경학회이사 ▲저서및 논문=「영남·호남 최박입지 적지적수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지리산 자원에 관한 연구」 ◇黃石淵法學博士=「民事訴訟法 判例의 硏究」 ▲서울大法大졸업, 東大學院卒業 ▲57년 고등고시 제9회사법과 합격 ▲68년 부교수 ▲63년 본교법대강사 ▲63년 본교법學院 理事 ▲현 법대강사 ◇저서및 논문=「제1심소송절차」「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시기」「訴의 객관식併合」 ◇金寒松農學博士=「한국산 잡草의 생태및 방제에 관한 연구」 ▲35년 강원출생. 본교농학과및 大學院졸업 ▲63년 영국 Pest Infestation 연구소에서 연수. ▲70년 미국 Kansas 주립대학연수. ▲72년 본교강사 ◇저서및 논문=「원자력의 농업에의 연구」「원자력의 식생에 관한연구」「PCP및Prometheyne의 살균특성과 수도에끼치는 약해에관한연구」 ◇元鎭樂農學博士=「방사선에 의한 수도단백질육성」 ▲43년 경남출생 ▲69년 농학과졸업 ▲69년한국원자력학회회원 ▲" 한국육종학회원 ▲72년 본교개량연구」「도마도의 돌연변이 육종에 관한 연구」

學生會豫算確定

一部保留, 通過

徐敬珏總長은 지난 1日 중앙당에서, 제7회 「리더쉽·위샵」은 7月16日부터 21日까지 학생지도연구소 주관으로 설악산 신흥사및 낙산불교학생회(會長=임기준·佛2)에서는 지난 2日 오후3時부터 중앙당에서 「萬海」 韓龍雲님의 思想講演會」를 개최했다. 5백여명의 본교학생및 22개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張興邪敎대학장은 「萬海의民族精神」이란 演題의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장경학박사는 『萬海는 우리에게 희생정신을 가르쳤다. 우리의 현실향이 어두운 것은 36년간의 억압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피해가 연장된까닭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각자 萬海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생활화표로 삼아 보람찬삶을 영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1925년에 출간된 詩集 「님의침묵」을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철우교수의 「萬海의 文學思想」이란 題演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는 萬海스님은 첫째 詩人이요, 둘째 스님이요, 셋째 애국자인 삼위일체의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리운 것은 모두 님이다, 님이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요, 萬海스님이 詩를 쓰지 않았다면 불교정신을 통해서도 그만큼 민족정신을 앙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목철우교수는 지난 10月1日 중앙당에서 吳法眼부총장, 韓相範학생처장, 李西崎교양학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月例法會를가졌다.

2학기들어 처음가진 이번 법회에서 연사 무진장스님은 「생활인의 지혜」라고 제목을 붙여서 인간상 형성과 불교적 인간상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진장스님은 『佛敎는 철학적 논리사상과 종교적 실천을 겸비한 종교라고 말하면서 다음 「人間·부처」라고 한 한 사람의 예술, 실존적 휴식욕등 5욕을 들었다.

이어 「나의 主人은 나」라는 제목으로 「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나」를 복귀시키는 主體的自覺의 確立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나」를 立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는 「나」를 늘의 國際情勢는 더구나 確固不動한 主體的自覺을 가장 切實하게 要請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現實的인 적은 利益에만 눈이 어두워 東國의 언덕에서 그 넋이 없는 것을 아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主人은 나이다. 나는 그 事實로 모름지기 主人을 잃은채 오늘을 살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잃어 버린 歷史는 自由의 歷史가 못되고 奴隷의 歷史이며 노예의 歷史이다. 그러나 오늘의 卒業式은 여러분이 構想한 設計圖를 實現段階에 옮기며 社會的 參與에 의한 奉仕를 「始作하는 契機」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卒業式이 漢字의 뜻대로 終了를 나타내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始作」을 意味하고 있음을 强調하고자 합니다.

卒業式을 契機로 여러분은 學生身分을 벗어나 이제 떳떳한 社會人으로서 첫발을 옮기기 始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卒業부터 卒業式을 終了로 解釋하는 漢字語보다는 卒業式에 該當하는 同時에 「始作」을 意味하는 英語 「코멘먼스트」를 택하고 있읍니다. 卒業式이 終了 보다는 시작을 의미하는 까닭에 모리어 여러분 各者의 一生에 있어서 이 卒業式이 嚴肅한 瞬間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本人은 여러분을 가르쳤던 敎授 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東國大學校의 總長으로서, 그 史에서 偉大한 構想을 實現하려 마련한 「創造的意志」를 挫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詩集은 「創造的意志」를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철우교수의 「萬海의 文學思想」이란 題演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는 萬海스님은 첫째 詩人이요, 둘째 스님이요, 셋째 애국자인 삼위일체의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리운 것은 모두 님이다, 님이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요, 萬海스님이 詩를 쓰지 않았다면 불교정신을 통해서도 그만큼 민족정신을 앙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卒業式辭

「나의 主人은 나」—創造的 意志로

總長 徐敬珏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尊敬하는 高僧大德스님과 內外귀빈을 모시고 우리 東國大學校 1972學年度 後期卒業式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本人은우선 盛會의 功을 쌓은 보람이있어 博士學位, 碩士學位, 學士學位을 授與받는 여러분의 榮譽에 대하여 敎授·職員 그리고 在學生들을 代身하여 衷心으로 祝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은 卒業後부터 즉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生活을 위한 準備過程에서 착실한 內的充實과 創造的設計를 構想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卒業式은 여러분이 構想한 設計圖를 實現段階에 옮기며 社會的 參與에 의한 奉仕를 「始作하는 契機」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卒業式이 漢字의 뜻대로 終了를 나타내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始作」을 意味하고 있음을 强調하고자 합니다.

卒業式을 契機로 여러분은 學生身分을 벗어나 이제 떳떳한 社會人으로서 첫발을 옮기기 始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卒業부터 卒業式을 終了로 解釋하는 漢字語보다는 卒業式에 該當하는 同時에 「始作」을 意味하는 英語 「코멘먼스트」를 택하고 있읍니다. 卒業式이 終了 보다는 시작을 의미하는 까닭에 모리어 여러분 各者의 一生에 있어서 이 卒業式이 嚴肅한 瞬間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本人은 여러분을 가르쳤던 敎授 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東國大學校의 總長으로서, 그 史에서 偉大한 構想을 實現하려 마련한 「創造的意志」를 挫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詩集은 「創造的意志」를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永遠한 理想追求에 굳건히

「나의 主人은 나」—創造的 意志로

法句經이란 佛敎經典에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當然한 이치가 못되고 있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즉 나의 主人의 자리를 나아닌 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 事實로 모르고 主人을 잃은채 오늘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잃어 버린 歷史는 自由의 歷史가 못되고 奴隷의 歷史이며 노예의 歷史이다. 그러나 오늘의 卒業式은 여러분이 構想한 設計圖를 實現段階에 옮기며 社會的 參與에 의한 奉仕를 「始作하는 契機」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卒業式이 漢字의 뜻대로 終了를 나타내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始作」을 意味하고 있음을 强調하고자 합니다.

卒業式을 契機로 여러분은 學生身分을 벗어나 이제 떳떳한 社會人으로서 첫발을 옮기기 始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卒業부터 卒業式을 終了로 解釋하는 漢字語보다는 卒業式에 該當하는 同時에 「始作」을 意味하는 英語 「코멘먼스트」를 택하고 있읍니다. 卒業式이 終了 보다는 시작을 의미하는 까닭에 모리어 여러분 各者의 一生에 있어서 이 卒業式이 嚴肅한 瞬間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本人은 여러분을 가르쳤던 敎授 또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東國大學校의 總長으로서, 그 史에서 偉大한 構想을 實現하려 마련한 「創造的意志」를 挫折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詩集은 「創造的意志」를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철우교수의 「萬海의 文學思想」이란 題演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는 萬海스님은 첫째 詩人이요, 둘째 스님이요, 셋째 애국자인 삼위일체의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리운 것은 모두 님이다, 님이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요, 萬海스님이 詩를 쓰지 않았다면 불교정신을 통해서도 그만큼 민족정신을 앙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中間考査15日부터

學年別로 강의병행

교무과에서는 지난 1日 제2학기 중간고사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요강을 살펴보면, 시험기간은 15日부터 20日까지이며, 고사과목은 1학년이 국어·영어·철학개론·불교학개론등 4과목이고, 제2, 3학년은 제2학기개강전과목, 제4학년은 중간고사는 과하지않고 기말고사를 11月12日부터 17日까지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고사방법은 제1학년은 17, 18日 2일간에 하루 2과목씩 보고, 시험이 없는 시험기간중의 15, 16, 19, 20 4일간은 정상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제2, 3학년은 평소 수업시간중 어느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사를 과하되 고사방법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

그리고, 고사기간중 고사를 과하지 않는 나머지시간(예=50분 3시간인 과목은 50분 1시간은 시험이고 나머지 2시간) 은정상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山岳部秋季등반

지리산, 2個組로

본교 산악부(부장=안병춘·공경3)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4일까지 6박7일등안 추계 지리산등반 훈련을 실시했다.

안병춘부장을 비롯 OB회원 1명을 포함한 14명은 구례—노고단—벽소령—박두동—코스와 구례—일경령—벽소령—칠선계곡—마천의 두개코스를 A·B양支隊가 각각 등반훈련을 가졌다.

會長=이춘섭

한국문제 연구회 定總서 활동평가

한국문제연구회(會長=박행수·懲行3)는 지난달 28日 학생회관 제1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남도영지도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공로표창을 수여했다.

제7회 「리더쉽·위샵」은 7月16日부터 21日까지 학생지도연구소 주관으로 설악산 신흥사및 낙산불교학생회(會長=임기준·佛2)에서는 지난 2日 오후3時부터 중앙당에서 「萬海」 韓龍雲님의 思想講演會」를 개최했다.

5백여명의 본교학생및 22개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張興邪敎대학장은 「萬海의民族精神」이란 演題의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장경학박사는 『萬海는 우리에게 희생정신을 가르쳤다. 우리의 현실향이 어두운 것은 36년간의 억압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피해가 연장된까닭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각자 萬海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생활화표로 삼아 보람찬삶을 영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1925년에 출간된 詩集 「님의침묵」을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철우교수의 「萬海의 文學思想」이란 題演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는 萬海스님은 첫째 詩人이요, 둘째 스님이요, 셋째 애국자인 삼위일체의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리운 것은 모두 님이다, 님이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요, 萬海스님이 詩를 쓰지 않았다면 불교정신을 통해서도 그만큼 민족정신을 앙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徐總長, 學生 표창

李浚杓君등 5名

徐敬珏總長은 지난 1日 중앙당에서, 제7회 「리더쉽·위샵」은 7月16日부터 21日까지 학생지도연구소 주관으로 설악산 신흥사및 낙산불교학생회(會長=임기준·佛2)에서는 지난 2日 오후3時부터 중앙당에서 「萬海」 韓龍雲님의 思想講演會」를 개최했다.

5백여명의 본교학생및 22개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張興邪敎대학장은 「萬海의民族精神」이란 演題의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장경학박사는 『萬海는 우리에게 희생정신을 가르쳤다. 우리의 현실향이 어두운 것은 36년간의 억압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피해가 연장된까닭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선각자 萬海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생활화표로 삼아 보람찬삶을 영위해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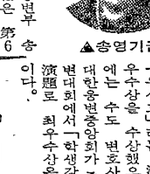
한편, 1925년에 출간된 詩集 「님의침묵」을 인용하면서 이 詩集은 萬海스님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이 뚜렷이 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철우교수의 「萬海의 文學思想」이란 題演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에서는 萬海스님은 첫째 詩人이요, 둘째 스님이요, 셋째 애국자인 삼위일체의 인간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리운 것은 모두 님이다, 님이란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요, 萬海스님이 詩를 쓰지 않았다면 불교정신을 통해서도 그만큼 민족정신을 앙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宋君兩大會 特賞

濟物浦, 全國 雄辯大會



▲송영기군

本校 학생회 웅변부 송영기(工經·2)君은 第6回제물포기 쟁달웅변대회와 전국남녀웅변대회에서 모두 특혜했다. 지난 9月26日 대한웅변인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리더쉽·위샵」은 9월29일 인하대학교 運動場에서 열린 全國高分子工學會 體育大會에서 본교 高分子工學會(會長=최만송·高工3)는 작년에 이어 二年連勝을거두었다.

本校二連勝

全國高工學會體典

本校 高分子工學會 團體優勝 ▲學務部=13단9천원 ▲公報部=11단4천원 ▲奉仕部=8단4천원 ▲慶援部=9천원 ▲愚溪村硏究部=10만9천원 ▲單大行事費=91만8천원 ▲代議員會=28만원 ▲學術硏究會=2만5천원 ▲總·副會長活動費=12만원 ▲리더쉽큐샵보조비=10만원 ▲地方巡廻P·R費=45만원 ▲豫備費=30만2천6백원.

수중발협부

제8次定總

本校 수중발협부(會長=임성기·化3)는 오는 9월29일 오후5시 써클룸에서 第8回定期總會를 가졌는데 이번 定總의 主要 案件은 73學年度 決算 報告및 任員改選 豫算樹立 等이다.

行政學會 體典서

本校팀 종합우승

本校 行政學科에서는 지난 9月29日 명지大學에서 개최한 全國大學 行政學科 體育大會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行政學科는 축구·배구등 5個 종목중 3個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우승기와 트로피를 받았다.

各大學 行政學科生간의 친목도모와 우리나라 大學 行政學科의 發展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全國에서 10個大學이 참가하였다.

유네스코 리더쉽·트레이닝

유네스코학생회(會長=민구)는 지난 9月29, 30양일간 청평캠프장에서 제8회「리더쉽·트레이닝」을 가졌다.

「나의 새로운 발견」이란 주제로 열린 명상및 미니올림픽놀이로 진행되었다.

한편, 미니세미나에서는 써클에 관한 관리론, 조직론, 리더쉽의 자질등에 관한 선후배간의 토론이 있었다.

國語運動學生會 활동활발

한글날 맞아, 백일장등

한글전용우리말에호응국어정화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全國國語運動學生會(會長=서동철東大경제3)에서는 9日5일 한글날을맞아 5일부터 27들 한글백일장을 개최하고 시30분경 정족수 과반수를 얻어 학생회가 이날 제출한 제2기분 총예산액은 2백80만2천1백원이었는데 이날 3약간 초과한 79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豫算案中 일부만 유보하고 전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0日 총학생회 부장단 認准과 공식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이날 제출한 제2기분 총예산액은 2백80만2천1백원이었는데 이날 3시30분경 정족수 과반수를 얻어

西欧의 社会保障과 福祉事業

社說

새學生會의 出帆

지난 九月 二四日에 總學生會및各單科대학별 任員에게 임명장이 수여됨으로서 七三학년도의 學生會任員陣이 退陣하고 七四학년도의 新학생회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七三學年度 학생회간부들은 작년에 任命된지 얼마 안되어 國家的인 중요한變動에 따르는 休校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多方面에 걸쳐 보다 나은東國學園의 建設을 위한 많은 業績을 남기고 新任 任員들에게 임무를 넘긴 것이다

新任任員은 물론이고 全學生은 이 任員들에게는 국가적 勞苦에 위로와 感謝의 뜻을 가져야 할것이다。

七三學年度 任員들에게는 국가적 변동에 따르는 어려움속에서 學生活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것인가 하는 課題가 있었겠지만 七四學年度 任員들에게는 東國中興의 터전을 튼튼히 하는데 있어서 學生會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라는 課題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課題를 어륙하려면 무엇보다도 新任任員의 새로운 覺悟가 있어야 하겠거니와 老熟心에서 몇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로 學生會의 基本綱領과 目的에 充實하라는 것이다。본래 學生會는 會則第2條에도 그 목적이 明示되어 있듯이 自律的인 학문연구와 應用實習을 통한 대학생활의 充實化에 의해서 指導的 人格을 닦는 學生 自治體이다。

그러므로 學生會는 社會開發에서 흔히 볼수 있는 勢力이나 돈과관련된 利益團體가 아니라는점을 무엇보다도 再인식해야할 것이다。

어떤 때에는 學生會幹部들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曲解하여 그것을 이용하려 하거나 私私로운 利益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도도없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率直히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그러한 現象은 민주에 있는 學生의 支持基盤을 잃고는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過誤를 지지르지 않게 되는 길인가를 생각할수 밖에 없는바 그 것은 민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會則의 정신에 충실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동제로 學生會의 任員은 어디까지나 學生會의 任員이 것이지 學校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그것은 당연한 事理이지만 언제나 留念해야할 편벌한 事理이다。學生會는 학생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自治體이며 學校運營은 아닌 것이다。

學校運營은 學校當局과 敎授들 사이의 三位一體가 될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 合心은 서로가 자기영역내에서의 役割分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前提로 可能化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효과제로 自治的 硏究活動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學生會 任員이 학생과 학교당국과의 媒介 機能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學生의 諸意見이 학생회임원단을 통해서 원활히 統合, 調整되어 그 任員이 학생과 학교당국에 建議, 또는 傳達되고 또 학교당국의 방침이 學生個人에게 잘 周知시켜 진다면 아마도 東國學園은 조용한 가운데 정로 형된것이 될수도 있을것이다。

學生會의 意見을 제대로 統合, 調整하지 못하거나 그것의 上達이 不可能하거나 학교당국의 방침이 올바로 下達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뜻에서의 三位一體的인 發展을 期할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任員들의 용바를 導管役割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학생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學生의 特性이 있는 學生會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이 任員들에게 學業을 疎忽히 하도록 하는 것은 없다고 할수는 없다。

張源宗

<經商大교수>

福祉事業은 國民生活保障·完全고용 擴大

英國의 경우 一九四二年 「비버리지報告」가 轉機

國家扶助·保險·福祉事業으로

W·H·비버리지

<그는 1942년 영국「처칠」내각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보고서에서「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1〉

먼저 哲학의 豫備知識으로서 한두가지 問題를 미리 整理해두는것이 순서가아닐까 생각된다

첫째는 社會保障과 社會福祉의 개념상의 혼돈이다 흔히 이두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경우를 보는데 실지어經濟學에서 조차 이러한 혼돈이 없지 않다

社會保障制度란 한마디로 特定의方式에의한 예리한 財源의 확보와 그財源을 通한國家責任下에 國民全員에게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保障해 주는것을 말한다

소요재원의 調達方式에는 國家제정에의한 扶助 또는國民全員이 收入에 相應하는 保險金을 갹출하는 保險方式등이 있는데 이 면 方法에 의하건 이와같이해서 調達된 財源은 國民生活의 最低限度를 보장해주는데 그치고 따라서 社會保障制度는 여기에 국한된다。 이에 대해서 社會福祉는 이와같은 社會保障을 土台로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一律的인 社會保障制가 미치지 못하는 국민생활의 모든 部面에 걸쳐 따뜻한 손길이 미치는 써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活動이나 事實의 展開를 뜻한다。

이렇게 볼때 社會保障과 社會福祉와는 區別되어야 하고 現實에 福祉國家의 理想은 최저한 생활보장에만 그치지 않고 國民生活의 全分野에 걸쳐 廣範한 福祉事業의 展開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社會保障또는 社會福祉라고 하지만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①保險方式 ②國家扶助 ③福祉事業인데 그리고 社會保障制는 期間의 長短에따라 短期給與와 長期給與로 나누어 지는데 단기급여에는 醫療·失業·廢災·傷病·出産保險등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老齡·障害·遺族年金이 있다。今番 정부에서 제정을 꾀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장기급여의 老齡年金에 해당한다。우리에게 時急히 요청되는 社會保障은 老後의 대책이 아니라 當場의 生活威脅을 덜어주는 의료보험이나 생활보험 또는 근로자에게 生存權을 保障하는 最低賃金制와같은 단기급여방식이 切實하다는 點에서 福祉年金法이 우선 問題가 된것이다。」

〈2〉

以上에서 社會保障制度 自體에대한 若干의 豫備知識을 摘記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크게 참고가될 先進諸國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에있어 획기적인 성취점을 이루고 크게 前進시킨 것은 유명한 一九四二年의「베버릿지」報告이다。第二次大戰의 激戰期인 四二年에 이미 保守黨內閣의 首班인「처칠」氏 後의 재건계획의 수립을 구상하고 委員會를 조직하여 그委員長에 보수당 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던「베버릿지」氏에게 戰後計劃의 樹立을 委囑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심히 苦職을 겪고있던 그 당시에 이미 戰後計劃을 구상했다는 것과 더우기 自己와는 反對立場에 있던 노동당 인사이자 社會事業家에 가담했던「베버릿지」氏를 起用하여 원대한 戰後計劃의 수립을 위촉했다는 것은「처칠」의 大人다운 襟度와 貫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했다。

「베버릿지」報告는 다음과같은 세가지 原則에 입각한 것이었다。

첫째, 역사적발전을 重視하고 過去의經驗을 尊重한다。

둘째, 社會進步過程에 있어서의 社會保障이라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세째, 國家와 國民은 恒常 협력체계를 형성한다。

以上과같은 세가지 原則에 입각하지 않는限 國家責任에의한 保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所論이었다。그리고 이같은 원칙에서 同報告書의 골자는

①사회보험의 확대와 完全雇傭政策에의 한 豫防的 開發

②收入有無와는 관계없이 家族數에따르는 국민생활의 보장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完全雇傭政策의 추진으로 經濟機會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입의 多寡와는 관계없이 國民全員의 收入에 相應하는 保險金의 갹출 곧 保險方式에의한 財源의 확보와 國家財政으로 國家責任에의한 국민생활 최저한도의 보장이 根幹을 이루고 있다。그리하여 국가는 확보된 財源으로 醫療, 退職年金 兒童手當 生活扶助 一切에 대해서 국민생활의 보장을 制度化 한다는 것이었다。이 報告書는 戰後에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廣範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베버릿지」의 報告書는 一部에 강한 반대도 있었으나 그후 약간의 수정을 加하여 1945年에는 벌써 政府提案으로 최초로 法律이 된것은 1945年의 家族手當法인데 이를 필두로하여 그후 갖가지 보장법이 나왔다。

英國의 社會保障制度는 既述한 세가지 분류 곧 國家扶助方式, 保險方式, 福祉事業의 세가지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의 國家扶助方式에 속하는 것으로 重要한것은 四五年의 家族手當法과 四七年의 國家扶助法이다。영국에 있어 家族數에 따르는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家族手當의 지급이었다。第二부터 四週 五「시링」의 手當을 支給하다는것이 이 法律의 취지이다。그후 選八「시링」으로 引上하고 五六年의 改正에서는 第三子는 週十「시링」으로 上昇했다。

다음 四七年의 國家扶助法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수준에 未達하는 者에게는 국가가 扶助하여 生活을 保障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兩法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同時에 늘어나는 家族에 대해서는 兒童手當을 支給함으로써 子女奬勵에 支障이 없도록 措處하고 있다。

단히 重視한다。

하지않는 名譽職의 敎授 研究를 보다도, 全然영터리 敎授 獨創的 敎授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랜歲月 積累된 연구는 그 일지라도 훌륭한 연구는 그 의 大學을 빛내주지만, 研究 한두학생만이 그의 研究 室에서 무엇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뿐이다。뭐지고 各分野의 財團 특히英國의 科學財團으로부터 들 어오는 돈이, 이와같은경 향을 加一層 助長해준다。 정부와 개인으로부터의 돈 은 最高의 것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러나 최근에는 研究가 强調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大學은 以前에 比해 서 研究活動이 활발히진 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문에 우리 가 支拂해야할代價은 低下 라고 하겠다。가장 유능 한 사람은 講義의 의무로부터 救濟하고, 보다有 能하지 않은 그리고 보다 經驗이 없는 사람들 에게 講義를 맡기려고하 는 대단히큰 壓力이 作 用하고 있다。大學은 昇進에 있어서도 以前에 比해 의 大學은 다른 敎授들 보다 研究活動이 활발히진 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문에 우리 가 支拂해야할代價은 低下 라고 하겠다。가장 유능 한 사람은 講義의 의무로부터 救濟하고, 보다有 能하지 않은 그리고 보다 經驗이 없는 사람들 에게 講義를 맡기려고하 는 대단히큰 壓力이 作 用하고 있다。大學은 昇 進에 있어서도 以前에 比해 强化하는데 있어서도 타당하다。

그런데 不幸히도 이에뒤해서 또는 나아가 硏究 를 진행시키기위한 奉仕 이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우리들 周邊에서도 이런 현상은 흔히 볼수 있다。우리大學의 많은 교수들이 國家 機關 또는 큰 企業體의 顧問으로 또는 硏究官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年前의 일로서 文理大學의 某數學敎授는 奬洲로 派遣되어 四年間이나 月 給을 支拂했었으나 世界 的인 學者가되어 不過 一個 의 流出 또는 外道를 밟 기위해서 大學은 그들에 게 봉급을 引上하는가, 待遇도 훨倍 많은 K, I, S, T, 로 設도 좋고 待遇도 훨倍 많은 K, I, S, T, 로 사라져간 일이 있으며, 授業의 부담을 半減하는 이것은 이미 事例가 許多하다。이것은 곧 運營費의 倍加現狀을 말해주고있다。그렇지 않으면 값이 싼 講師(大學院學生이 大部分)로 代置하지 않으면아니된다。

被雇를 입는것은 물론 學生이다。이들있는 敎授 에 依해서 진행되고 있 는 講義라면 일적으로 키고, 講義室에서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것 을 즐처럼 발전할수 없 다는것이다。

물론 그 自身의 대학의 外部로부터 그를 誘惑하는 위에다나 硏究라는 絶對的 인 요청이 있다。從來의 대학교수의 主任務는 敎育 이었다。敎育은 學生 의 요청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老齡 • 出産保險등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老齡 • 障害 • 遺族年金이 있다。今番 정부에서 제정을 꾀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장기급여의 老齡年金에 해당한다。우리에게 時急히 요청되는 社會保障은 老後의 대책이 아니라 當場의 生活威脅을 덜어주는 의료보험이나 생활보험 또는 근로자에게 生存權을 保障하는 最低賃金制와같은 단기급여방식이 切實하다는 點에서 福祉年金法이 우선 問題가 된것이다。」

〈2〉

以上에서 社會保障制度 自體에대한 若干의 豫備知識을 摘記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크게 참고가될 先進諸國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데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에있어 획기적인 성취점을 이루고 크게 前進시킨 것은 유명한 一九四二年의「베버릿지」報告이다。第二次大戰의 激戰期인 四二年에 이미 保守黨內閣의 首班인「처칠」氏 後의 재건계획의 수립을 구상하고 委員會를 조직하여 그委員長에 보수당 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던「베버릿지」氏에게 戰後計劃의 樹立을 委囑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심히 苦職을 겪고있던 그 당시에 이미 戰後計劃을 구상했다는 것과 더우기 自己와는 反對立場에 있던 노동당 인사이자 社會事業家에 가담했던「베버릿지」氏를 起用하여 원대한 戰後計劃의 수립을 위촉했다는 것은「처칠」의 大人다운 襟度와 貫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했다。

筆隨授敎

대학의 各專攻分野를가진 自然科學分野의 敎授 또는 硏究者의 경우는 幾何級數的인 速度로 증가하고 있다。高等敎育을 위한 학교는 그 施設을 확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大學의 건물은 全世界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있다。敎室은 마련하고 主人을찾지만 좋처럼 구하기란힘들며, 다행히 求했다고하더라도 그가 연구실을 지키고, 講義室에서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것을 즐처럼 발전할수 없다는것이다。

많은 學生들은 獎學가 그 自身의 대학의 外部로부터 그를 誘惑하는 위에다나 硏究라는 絶對的인 요청이 있다。從來의 대학교수의 主任務는 敎育이었다。敎育은 學生의 知識을 增進하고 主人을찾는 것이다。

그런데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에있어 획기적인 성취점을 이루고 크게 前進시킨 것은 유명한 一九四二年의「베버릿지」報告이다。第二次大戰의 激戰期인 四二年에 이미 保守黨內閣의 首班인「처칠」氏 後의 재건계획의 수립을 구상하고 委員會를 조직하여 그委員長에 보수당 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던「베버릿지」氏에게 戰後計劃의 樹立을 委囑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심히 苦職을 겪고있던 그 당시에 이미 戰後計劃을 구상했다는 것과 더우기 自己와는 反對立場에 있던 노동당 인사이자 社會事業家에 가담했던「베버릿지」氏를 起用하여 원대한 戰後計劃의 수립을 위촉했다는 것은「처칠」의 大人다운 襟度와 貫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했다。

国文学上의 佛教思想研究

金起東 〈國文學〉

教養中心 因果·輪廻思想도 主流 佛보살中心思想도 多様

저 印度에서 발생하여 中國을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佛教는 三國時代부터 우리겨레의 우월한 宗教로 信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民族文化를 形成하는데 있어서 어느 敎學보다도 至大한 영향을끼쳤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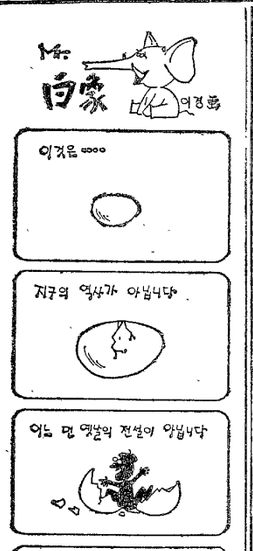
그 民族文化의 창조를 이루고있는 國文學에 어떠한 佛教思想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문제를 探求해 보겠이 硏究의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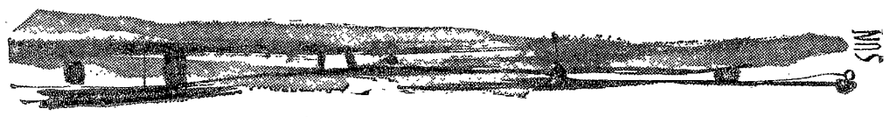
그런데 원래 佛敎思想은 幽玄深遠하고 또 複雜多岐하여, 그것을 把握하기란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또 佛敎思想에 대한 基本的인 지식이 없고서는 國文學에 나타나 있는佛敎思想을考察할수도 없다.

敎의 倫理思想에 비해 微微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佛敎에 있어서 萬有諸法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因果思想은 李朝時代의 酒小說에서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專作의 진행을 因果의 법칙에 의하여 結構해 놓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善人은 善行에 대한 善果를, 惡人은 惡人에 대한 惡果를 招來하도록 한것은 勸善懲惡이란 酒小說의 공통적인 主題를 効果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佛敎에서는 因果思想을 바탕으로 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는 많은 酒小說의 작가들이 佛敎說話에서 素材를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였기, 백운이라고 했다.

셋째, 전술한 因果思想에서 派生한 輪廻思想은 詩歌文學에서는 찾아 볼수 없었고, 李朝時代의 酒小說中 「九雲夢」·王郎返魂傳·唐太宗傳·香娘傳」등과 같은 作品에서 찾아 보았다. 그 輪廻는 六道輪廻하여 人間으로 還生하거나 畜生하거나 地獄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死後





가을의 反響

朴柱官

한일 枯葉이 눈(眼)에 구른다。

이제는 분수없는 그 藝家의 悔恨과 파이프를 생각할때면 그 사람이 가을에 죽어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처럼 살다 가 서러운 것이다。세월의 목멸미를 낚아채는 바람의 위대함을 이제는 알겠다。

모든이들은「아티스트」라해서 그렇게로 사귀었다지만 아버지의 藝術論을 들고서 꼬마들도 뿌듯했다지만、유독 夫人의 바람소리는 가끔 거셋다지。

가을바람앞에 붓이 꺾이곤 했다더군。」

病床위에 짧은 해가 듣지 며칠째가서 가버린 그의 生涯가 짧아서 슬프다기 보다는 결국은사람들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살다 갔것을 생각하니 가을에는 우는 것이다。

한일 蒸藥이 발에 밟힌다。

「아우슈비츠」의 거센바람이 얼굴에 휘돈다。

남들처럼 그렇게 그렇으면 바람을 이겨윤텐데 「마티스」들 생각하다가 하없는 愛情으로 그의 길을 揮揮하다가 가을에 떠나버린 그 藝家를 눈에 올리면 내 自身이 보여서 우는 것이다。

〈文理大國文科〉

「리투아니아」公演記

□장 기 용□

한달 보름장의 피말여 한 노력으로 일한년 실공연「루피트·부르크」작「리투아니아」의 막이 올랐고 또한 무사히 내렸다 대한에 들어 우리와 처음하는 연극、또한 우리와 생활 양식이 다른 외국의 번역극 작품을 택했다는 점에서 막이 올라 잘 때까지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과고통을 주었다。「리투아니아」란 말은 소련의 한 지방 이름으로 이 지방에 독립한 종토의 영향을 받아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무대에 올려 표현해 본것이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모두 일곱명이다。그러나 이 일곱명이 한같이 모두 정상적이 아닌 하나 하나의 병적인 삶태이며 자아를 상실한 인간으로서 극한상태 속에 살아 나가고 있다。어느날 저녁 찾아 와서 하루밤 묵여 가기를 원한다。 자기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자인데 내일은 무엇을 배웠고 어떤것을체험 얼마만한결과를 얻었는지 보여줄 단단히 준다면 보수를 단단히 재워주

이 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 전개되며 관객에게는 많은 돈과 금시계 있는 많은 돈과 금시계

登場人物 모두 病的

自我喪失의 現代人像 그려

演技에 조용한 反省

한국반더포겔聯盟 自轉車하이킹大會

한국반더포겔연맹이 오는 10月14日 조선일보사의 후원 한국자전거육성회의협찬으로 제1회 남녀대생고등자전거하이킹대회를 주최 한다。 요즈음 도시인들에게 적극권장하는 전기운동의 연행한으로서 도시공해를 경감소라도 인소하여 명랑한고 자전거타기운동을 병장인 자전거타기운동을 전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많은 돈과 금시계

文化短信

서울시의정부~동두천(편도30㎞)간의 코스에서 벌어질 이 대회의 참가비는 그룹(4인)이 3천2백원 개인이 1천원이며 접수기간은 10月1日부터 12日까지이고 접수장소는 한국반더포겔연맹 사무국이다。

▲접수장소 ①한국반더포겔연맹 ☎62292 ②서울자전거산회 ☎0652

大學生學術討論會

서울청년회의소는 오는 11월24일 대학부연합회대강당(555)에서 제1회 전국대학생학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사닷 한국청년회의소、경향신문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슬공연「루피트·부르크」작「리투아니아」의 막이 올랐고 또한 무사히 내렸다 대한에 들어 우리와 처음하는 연극、또한 우리와 생활 양식이 다른 노력으로 일한년 실

서울청년회의소(전화 315호 75-8)에서 제출처는 공문 접수한 순서로 하며、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금시계 지 서는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며 관객에게는 있다。

自轉車하이킹大會

한국반더포겔聯盟

한국자전거육성회의협찬으로 제1회 남녀대생고등자전거하이킹대회를 주최 한다。 요즈음 도시인들에게 적극권장하는 전기운동의 연행한으로서 도시공해를 경감소라도 인소하여 명랑한고 자전거타기운동을 병장인 자전거타기운동을 전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는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다。

이달에 읽은 책

政善 金

샐린저著「호밀밭의 파수꾼」

世代差의 苦悩像 그려

豊饒社會 深淵을 배경

심리학과 사회학의 照明燈을 밝혀「에릭히 프롬」이 現代의 孤獨한人間像을 이야기한즈음、「샐린저」는 作家의 情熱에 찬 눈을돌려 한 少年을 주시하였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가난한 火田民의 아들이아니었고 破片을 맞고 쓰러진 어버이의 주검앞에 慟哭하는 戰爭孤兒의 모습도 아니었다。 오히려 豊饒를 極한 先進社會를 背景으로 작품을 전개한다。外面的으로는 아주平穩하게 되었고 「極端의 利己와 反抗」 번영을 아는 이는 많지 않지만 이라는 狀況속에 집어넣었다。그래서 世代와 環境을 달리하는 두 少年을 와의 斷絶은 日常의 단 가?未熟한 自己를 防衛 하고 있는 內心과 社會 既成을 攻擊만 한 것인

「샐린저」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들려내 보일 욕구 이들이 겪어보았고 現在 의 젊은 이 또한 經驗 하고 있는 內心과 社會 既成을 짓밟아왔다。 固陋한 慣習을 배격한다。 인제인가부터 우리 세대 에서 자주 쓰이게된 世代差라는 말은『傳統속에 合流되는、保守와 維步의 秩序』라는「공트」의 念願을 짓밟아왔다。 固陋한 慣習을 배격한다。 인제인가부터 우리 세대 에서 자주 쓰이게된 世代差라는 말은『傳統속에

만 그 밑바닥에 서식하는 허다한 병폐의 수술을 위해 나선자는 드물다。이러한 洗理解와 無觀心속에「샐린저」가 擬 視한 絶緣된 少年「홀든·코퀼드」는 소위 世代差에 敏感하다。

획일적인 사회와 變革없는 思考方式에 食傷하고 傷害을 혐오하고 固陋한 慣習을 배격한다。

「홀든·코퀼드」는 「홀든」이 아니라 「샐린저」가 그려낸 인간 「홀든」의 유일한 希望을 의미깊게 묘사하여 「샐린저」는 『여러분 저 넓다란 호밀밭에서 무슨 장난인가 치고 있는 있이를 모두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어、수천명의꼬마들、그 주위에는 아무 한 이외에는 큰놈이 없었던、난 어떤 절벽끝에 서서 꼬마들이 뛰어 놀며 달리다가 어디로 가고있는지를 보지 못할때 그곳이 절벽끝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뛰어 나와서는 그 애들 보고 말하기 위해 나는 하루 종일 할 일 전부야』

그의 소박한 바램속에서도「홀든」을 懇誠한 이유는 무엇일까? 꼬마들을 극복하려는 念願을 돌보아 주려는 것은 斷絶을 극복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샐린저」는 『여러분은 「이데아」를 純粹한 世代로서 輕視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孤獨한 自己의 「에고이즘」을 이겨내어 超自我에 이르렀다는 것인가?「샐린저」는 無觀心한 모두를 向해「홀든·코퀼드」를 이야기하고 있다。누구나 다아는 이야기 일에도。

〈法政大行政學科〉

푸름벤치

해마다 이 다가 고되의 나뭇잎은 한 돌아가 이 한잎 떨어지고 만다。 가을이면 귀부리미와수 울웨쁘는 일을업주고 時空 이 이 세상 아 이 나 는 드물 한것이다。그는 모든것을 否定해 본다。그러면 그에게 새로운 世界가 展 開될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해본다。

그러나 싸워야 하는데 무도 많은것으로 이 것은 매년리즘과 의 것은 매년리즘과 의 것은 매년리즘과 의 歡樂的現實과 偽善으로 權威의 分身이 되고자 하는 人間을 때문에 이서 그는 모든 젊은이들을 그는 現代의 作家들에의 자주 쓰이었듯이 大 最物質속에 파묻혀 해여 나지 못하고 車輪時代의 信號機마저 고장난 社會 를 사는 모든 사람의 괴로움이다。

이미 오래전에 「베르테르는」는『大都市의 아들로 태어나/더럽혀진 아들로 태어나/나는 것을 求하고/ 기 모든 것을 求하고/ 憂鬱한 人生觀은 讀者 에 依해 形成된다。책을 읽는 동안에는 先人의 세모순세계에 접하여 인간의 智 씨을 듯 다가왔다。 그는 눈을 비볐다。 그는 무심결에 몸 을 피하며 제재소에 톱 들아가는 소리가 공장의 기계 톱아가는 소리와 어울려 요란했다。 김은 다시 솔 연저리에서 휘날리며 피어나고 그냥넓긴 일이생 배가 고팠다。 점심을 그냥넓긴 일이생 작됐다。 그는 앉고 있던 비닐 가방에 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밥냄 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뒤개가 귀 와 귀로 맞금을 긋고 시체처럼 누워있었 었다。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한입 밥 먹었다。 모래알처럼 깔깔한것이 밥 알 갖지가 않았다。입 안에서 사르르모 래 씹히는 소리가 나 오래된 밥을 물 결 갖았다。그는 한 조각을 집어 넣고、덜 씹 그러나 눈물은 입 밖에 어떤 열을 흘체 멈출성싶지 않았다。 눈물은 볼을 타고 내려 밥 위로 뚝뚝떨어 졌다。다시 한 입 밥을 떠넣 은 그의 야속